

스마트한 바보들

스마트한 바보들

이진천 지음

도구의 노예는 되지 말자

현대사회에서 IT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하루 일과가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스마트한 디지털 기기가 현대인들을 똑똑하게 해줄까. IT전문가이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진천 씨가 발간한 '스마트한 바보들'은 똑똑해지는 디지털 기기와 달리, 날로 바보가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조명한다.

한 대학생의 일과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아침에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펼쳐든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는 이 학생의 행동을 기록한다. 버스에 올라타면 요금지불기에 카드를 대는 순간 중앙 컴퓨터로 정보가 전송돼 정산이 이루어진다.

승강장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길에 설치된 교통신호 역시 IT기술에서 비롯됐다.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파워포인트, 시뮬레이션 영상 등 컴퓨터를 활용해 진행된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기(利器)가 되기도 하고 흉기(凶器)가 되기도 한다. IT기기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되 도구의 노예는 되지 말자고 강조한다.

〈진한엠엔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

틱낫한 지음

당신도 부처가 될수 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부처가 되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이 법화경 해석서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네'를 펴냈다. 법화경의 산스크리트 원본 제목은 '삿다라마 폰다리카 수트라'로 연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다. 기원전 2세기경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으며 2세기 말엽에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법화경은 당시 불교의 모든 종파와 사조를 통합하고 수용했기에 '경전의 왕'으로도 불리게 됐다.

특정 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법화경이 주는 연꽃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각계 각층의 이기심으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이 시대에 법화경을 통해 화해와 조화, 평화와 평등의 메시지를 전한다. 책은 법화경 28품을 각각 역사적 차원, 궁극적 차원, 실천적 차원, 비폭력적 행동, 열린 마음으로 나눠 알기 쉽게 풀이한다.

〈예담·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성사회' 식탁이 위험하다

죽음의 식탁

마리 모니크 로뱅 지음

죽음의 식탁



“죽음의 식탁”은 내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확신의 산물이다. 우리는 식탁에 올라오는 내용물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쟁겨서 누군가가 하든 이로운 것이 없는 미량의 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본문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독을 먹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독성사회'(毒性社會)가 분명하다.

이뿐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 당국이 독성화학물질을 만들어 내는 대기업과 결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프랑스 마리 모니크 로뱅이 펴낸 '죽음의 식탁'은 그러한 가능성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 이 책은 농약에서부터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와 플라스틱 용기까지 일상에서 만연한 독성화학물질을 추적한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의문을 가졌다. 이

갈수록 느는 암 환자들

독성화학물질서 원인 찾아

화학물질 1일 섭취허용량

대기업·규제기관 합작품

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10개국 50명의 과학자, 활동가, 규제 기관 대표들과 인터뷰를 한다.

그는 2년간에 걸친 조사와 추적 끝에 그 원인이 수만 개의 화학물질에서 비롯됐음을 밝혀낸다. 그리고 대기업과 과학자, 규제기관의 기만과 속임수가 이를 방조하고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질병을 양산하는 독성화학물질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쟁에서 쓰던 화학무기가 농약으로 재활용되고, 병충해 '킬러'에서 식물 '약제'로 둔갑한 농약은 해충보다 인간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이는 더 큰 피해를 준다. 이는 더 큰 피해를 준다.

여기에 화학물질 유해성 기준인 '일일 섭취허용량'과 '잔류농약 최대허용량' 개념은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작해 만든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 아스파르트, 비스페놀A와 같은 독성화학물질이 식탁에 올라오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해독센터 독성학자들이 농약의 독성을 피해 치기는커녕 화학 업체를 변호하며 그 영향을 부정하고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화학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성학자와 전문가들이 공공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사 제품을 옹호해줄 연구자들을 '용병'이나 '정부업체'로 고용해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반적인 연구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위협받는 것은 소비자들의 건강, 생존이다.

그럼에도 발암물질 아스파르트메이트 6000개 식품, 300개 이상의 의약품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불임을 일으키고 태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스페놀A가 플라스틱 용기, 음료수 캔 등에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한다. 농약을 금지하고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시스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리스크 평가에서도 소수 전문가가 밀실에서 좌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뜻밖이다.

“예방은 권위가 아닌 대화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리스크의 '수용 가능성'이 미리 정해 놓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절차가 되어야 한다.”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독성학자 제클린 베렛이 말했다. “규제 기관이 화학물질에 권리를 빌려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 화학물질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 권리의 주인은 인간이다.” 〈판미동·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80년 5월 '열흘간의 광주' 추적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이상문학상(2005년) 수상 작가인 한강이 광주의 오월을 다룬 장편소설을 펴냈다.

신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광주와 그 이후의 시간을 추적한다.

그동안 작가는 섬세한 감수성과 치밀한 문장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왔다. 기존에 써왔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시선을 더욱 깊어졌다.

이번 소설에서도 작가의 문학적 역량 은 유감없이 발휘된다.

취재를 바탕으로 한 정교하고 밀도 있는 문장은 전편에 걸쳐 독특한 울림을 발한다.

소설 기자에 흐르는 작가의 물음은 한결같다. 집단 트라우마의 고통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5·18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소설은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호와 정대의 이야기를 축으로 전개된다. 정대는 시위대와 행진 도중 계엄군이 손 총에 맞아 죽게 된다. 동호는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청 상무관에 들렀다 시신 뒤통수를 도운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대학 시절 데모와 출판사 일을 통해 소극적 저항을 이어가는 은숙, 현장에

서 체포된 뒤 성고문을 겪는 선주, 고문으로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택하는 진수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소설은 이처럼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을 pinpoint하게 그려낸다. 또한 '유전자에 새겨진 동일한 잔인성'이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문학평론가 백지연은 “5월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한강의 소설”에서 “증언하는 자의 소명의식과 듣는 자의 상상력이 치열하게 어우러지는 간절한 고백의 서사는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의 열흘’을 고통스럽게 되살린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손자에 대한 내리사랑 365편 편지글



행복이

김초혜 지음

“사랑하는 재민아! 할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같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세상잡사 갖은 일들이 네 옷깃에 스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그것이 과한 욕심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이 세상 모든 할머니들의 마음이란 다...”

손자에 대한 절절한 내리사랑을 1년 365일간의 마음으로 표현한 편지글 '행복이'가 나왔다. 〈창비·1만2000원〉

1964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후

한국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현대문학상,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초혜 시인은 첫 손자를 생각하며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썼다. 이 책은 손자에게 선물한 365편의 편지를 모아 엮은, 잔잔하면서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다.

모든 편지의 첫머리는 '사랑하는 재민아!'로 시작한다.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 탄생부터가 이미 삶의 행복이 된 사랑하는 첫 손자 재민 군에 대한 그지없는 마음이 하루하루 편지에 그대로 녹아 있다.

시인은 손자에게 이렇게 전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세상의 잣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이 되어세상에 진정 소극과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시공미디어·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